

수능 끝, 시력교정 어떻게 할까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

‘3D스마일’ 수술 1시간 후 일상 회복 가능

레이저 강도 낮춰 손상 방지
빛 번짐·안구건조증 줄여
눈 성장기 전문의 진단 필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의 시력교정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안과병·의원에는 안경을 벗고 싶은 수험생들의 라식·라섹·스마일 수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력교정술은 철저한 검사와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력교정술의 권위자’로 꼽히는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으로부터 시력교정술에 대한 궁금증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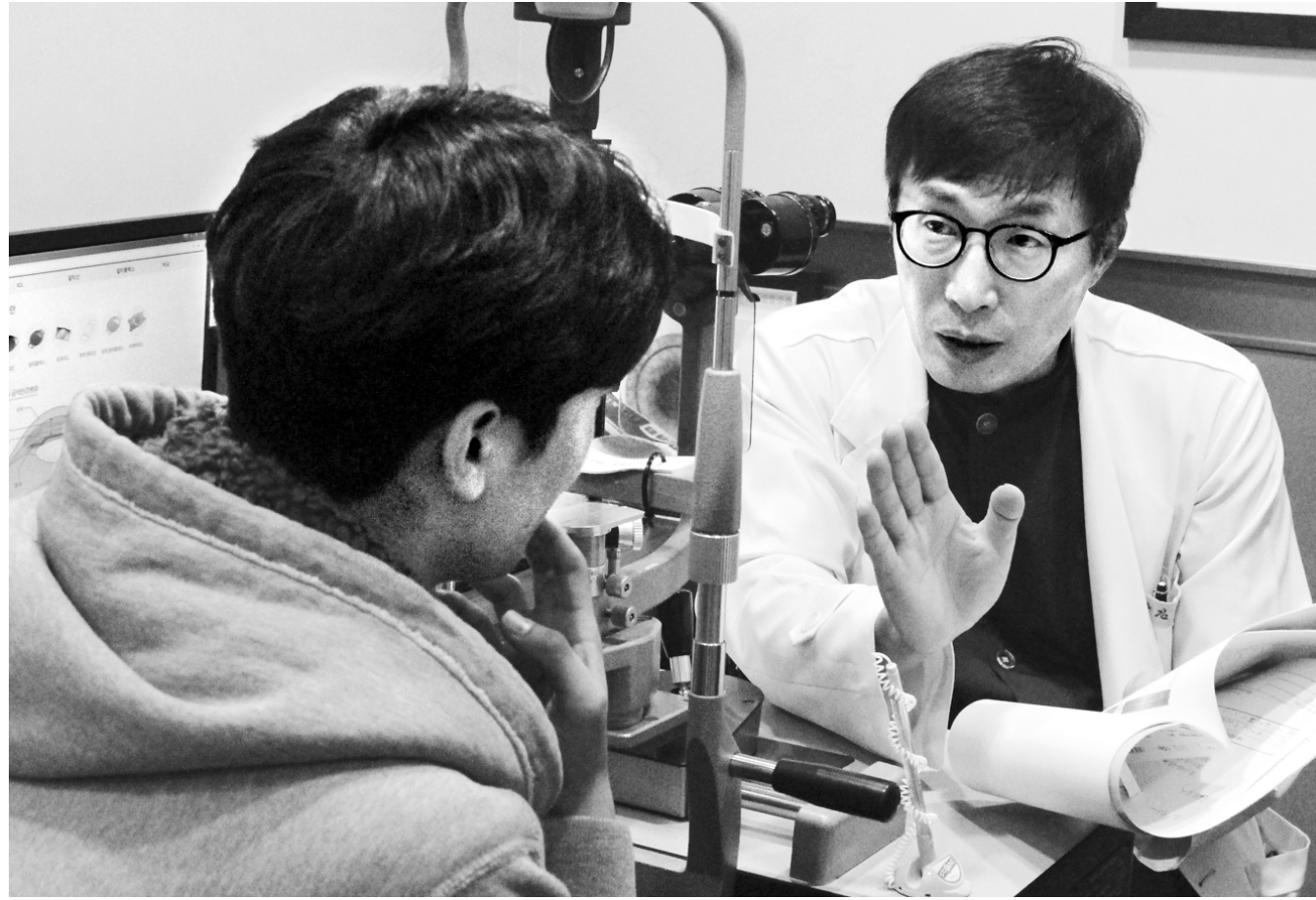
◇시력교정술도 수술시기가 있는지=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이더라도, 아직 눈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키도 계속 커가는 것처럼 눈도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후 눈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병원에서 자세한 눈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력교정을 한다면 안구의 불규칙한 성장으로 근시진행이 계속 진행돼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식, 라섹, 스마일수술의 장·단점은=수술이 가능한 눈이라면 다양한 정밀검사를 통해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라식, 라섹에 국한돼 있던 수술방법은 최근 고도근시까지 시력교정이 가능한 스마일 수술이 생기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은 시력이 떨어지면 레이저로 각막을 정교하게 깎아내 교정할 수 있는 라섹·라식이다.

라섹은 1세대 시력교정술로 불린다. 각막 상피를 알코올로 녹여 제거한 다음 각막 안쪽 부분인 각막 실질을 레이저로 깎아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이다. 다만, 시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정도로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심한 것은 단점이다.

2세대 시력교정술인 라식은 각막에 절편(뚜껑)을 만든 뒤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라섹의 단점을 보완해 시력회복이 빠르다. 하지만 각막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을 함께 절단하다 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신경이 손상돼 각막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일부에선 눈의 건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빛 번짐 등의 부작용



김재봉 밝은광주안과원장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력교정 수술을 상담하고 있다.

〈밝은광주안과 제공〉

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 3세대 시력교정술인 ‘스마일(SMILE·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수술이다.

스마일수술은 펄토세컨드 레이저로 각막을 통과해 시력을 교정하는 최첨단 수술법이다. 일반적인 라식수술은 각막을 24mm 정도를 절개해 수술하는 반면 스마일 수술은 2m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량을 줄일수록 각막의 신경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라식·라섹수술에서 간혹 발생하던 안구건조증, 원추각막, 각막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무엇보다 스마일수술의 가장 큰 세 가지 장점은 각막손상 최소화, 빠른 일상복귀, 고도 근시 등 시력교정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다만 기존 라식·라섹에 비해 다소 높은 수술비는 단점이다.

◇요즘 ‘핫’한 로우에너지 3D스마일 수술은=스마일 수술 중에서도 최근 밝은광주안과 등에서 사용 중인 로우에너지를 이용한 3D스마일수술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술법으로 꼽힌다. 이 수술법은 스마일 수술시 로우에너지로 조사한 뒤 각막을 절

개해 교정한 각막실질을 꺼내는 방식이다. 로우에너지는 스마일 수술 과정에서 생성된 각막 실질 표면의 ‘거칠기’를 감소시켜 레이저가 각막면을 분리하면서 발생하는 가스기포를 최소화한다. 따라서 수술 후 뿌옇게 보이는 증상 등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로우에너지 3D스마일 수술은 수술 후 빛 번짐을 유발하는 고수위차가 많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도수가 높아지는 것 이상의 편안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의의 의견이다.

수술 후 1시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또 각막 붓기도 빨리 사라져 수술 다음날부터 메이크업, 세안 같은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3D스마일수술은 광주지역 주요 안과 병·의원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다. 밝은광주안과의 경우 지난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후 5년간 1만례 이상 수술을 진행했다. 또 올해 스마일수술 장비를 추가로 1대 더 도입, 호남지역 안과 중 유일하게 3D 스마일수술 장비를 2대 보유하고 있다.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대표원장은 독일 쾰지아츠사의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로 선정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시력교정술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김재봉 원장은 “로우에너지 3D스마일 수술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수술로, 집도의의 능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경험과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 성능 좋은 장비 등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 병·의원에서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시력교정술 전·후 주의사항은=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각막이 붓거나 뒤틀릴 수 있는 만큼 소프트렌즈는 3일간, 하드렌즈는 3주 정도 착용을 중단한 뒤 각막이 정상상태로 돌아오면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쌍꺼풀 수술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면 라식수술 후 1개월이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시력교정술을 받은 후 1개월까지는 후유증 발생 여부 등을 지켜보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눈을 심하게 부딪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수영이나 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과격한 운동도 피해야 한다. 또 과로를 피하고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중 1시간 간격으로 10분씩 눈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학교병원 2동에서 지난 24일 열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식에서 이삼용(가운데) 병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실 전남대병원 통합치료센터 개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광주·전남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4일 병원 2동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센터장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이하 통합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개소식에 이어 전남대병원 교수진을 비롯한 서울의대·가톨릭의대·전북의대·울산의대 교수 등 국내 유명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치료센터 개소에 따라 지역민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전남대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치료센터는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에 따른 고위험 산모와 각종 중증질환의 신생아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선정한 전남대병원 통합치료센터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치료를 펼칠 수 있도록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그리고 분야별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 통합치료센터 중 가장 많은 12병상 규모의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 치료실과 45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한다.

김윤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만 취약 보유지이자, 원정출산이 많았던 광주·전남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출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병원·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는 “최근 전남지역 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실태조사를 비롯한 연구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업안전보건센터는 전남 어업인을 대

상으로 무릎 골관절염 연구치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돼 올해 어업인의 건강실태 조사 및 건강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과 9월에는 완도군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